

보성군, 녹차식용유 판매 촉진 나섰다

보성그룹·신라 외식개발 티바두마리치킨과 업무 협약

보성군이 녹차식용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들 사업체가 고급유인 녹차식용유를 구매하고, 군은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판매 및 판촉에 나선다는 것이다.

보성군은 10일 “지난 7일 (주)보성그룹과 (주)신라 외식개발 티바두마리치킨과 함께 건강한 녹차 문화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정중호 보성군

수, 서준석 (주)보성그룹 상무이사, 유상부 (주)신라 외식개발 티바두마리치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주)보성그룹에서 고급질 보성녹차식용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티바두마리치킨은 보성녹차식용유 제품을 사용하며, 보성군은 보성녹차식용유와 티바두마리치킨의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보성그룹은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지역 기업으로, 식물성 유지에 녹차성분을 혼합, 기능성이 향상

된 보성녹차식용유를 개발해 매일 10t을 생산하고 있다. (주)티바두마리치킨은 전국에 30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보성그룹 서준석 상무이사는 “보성녹차식용유는 비타민 E(천연 토코페롤)를 많이 함유한 웰빙 식용유로 전국적으로 대규모매장을 갖고 있는 (주)티바두마리치킨과 손잡게 된 것은 서로 성장을 도와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신라 외식개발 티바두마리치킨 측은 신메뉴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름으로 실험한 결과 보성녹차식용유가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제품의 청결도를 유지하는데 탁월해 협약 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LPG 사용 800가구

순천시, 금속배관 교체

순천시는 10일 “LPG를 사용하는 서민층 800가구에 대해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설개선 대상세대를 조사 선정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과 함께 10월말까지 국조보조금을 포함 1억75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194세대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원대상가구의 안전점검과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구례라이온스 ‘사랑의 집짓기’

구례라이온스협회 전남 동부지구(355-B3) 구례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진홍)이 지난 8일 구례군 구례읍 봉서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말 착공했으며, 회원 60여명이 직접 공사

에 참가, 저소득 다문화가정에게 보금자리를 선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구례=이성구 lsg@kwangju.co.kr

32년간 홍물 방치 여수 재건중 철거 체육시설·전망대 갖춘 공원 만든다

32년간 홍물 방치된 여수시 남산동 예암산 재건중 건물이 철거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여수시 남산동 42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재건중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1만 6500㎡ 규모 부지에 철쭉 등 꽃나루 식재와 체육시설 및 전망대, 등산로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한다.

재건중은 지난 1977년 건립돼 5년간 지역 내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1982년까지 5년 동안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폐교된

후 그동안 건물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면서 가축축사로 사용되는 등 구도심의 대표적 홍물로 전락했다.

청소된 탈산 및 각종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면서 철거요구가 잇따랐으나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담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일대는 구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불산대교, 한재, 구봉산, 국동, 시민회관 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구도심권 주민들을 위한 공원 및 산책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고흥군-교육청-서울강남교육청 업무협약

교차 수업·학생 교류

고흥군은 10일 고흥군청 상황실에서 박병중 고흥군수, 유영환 서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류계경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2012년 고흥군과 강남교육지원청간에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 교류가 계속됐으며, 이를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3주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촌체험학습에 필요한 장소 등 편의제공, 강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운동부학생 동계훈련 장소 제공, 고흥군 생산 식자재 학교 납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및 우주해양탐구 활동 지원, 학생 및 교직원 도농 교류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강남교육지원청과 교차 수업, 학생·교사 간 교류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들의 활발한 교류활동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인터넷에서 만나라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북



정읍시가 최근 시내에 설치한 전자식 회전광고판.

정읍, 중앙로 2곳 전자식 회전광고판 설치

정읍시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정읍시 중앙로 2곳에 전자식 회전 광고판을 설치했다.

시는 10일 “현수막 게시대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높게 설치돼 있어 교통시야를 방해하는데다 조망권을 가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전자식 회전 광고판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식 회전 광고판은 작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앞, 뒤 양면으로 많은 양을 광고할 수 있고 상하로 회전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어 광고 효과가 크고, 도시

경관에도 도움이 돼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광고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 위탁해 이달 시범 운영 및 광고 접수를 받아 3월부터 전자식 회전 광고판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고 기간을 1만당 30일 정도로 하고, 3만5000원의 광고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광고를 희망하는 시민·업소는 업소 및 상가의 특징을 살려 광고내용을 위탁사업자인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종균화사업 3년간 국비 9억 투입

‘농진청 어젠다’ 선정

순창장류와 가양주를 중심으로 고부가 전통발효미생물에 대한 종균화 사업이 ‘2014년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에 선정돼 국가 차원의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는 ‘약주, 증류주 및 장류 제조를 위한 종균화 기반 연구’로, 농촌진흥청과 순창장류사업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전북대와 순창군 발

효미생물관리센터가 참여한다. 연구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로, 3년간 국비 9억원이 투입된다.

순창장류사업소와 발효미생물관리센터는 장류 종균인 황국균과 고초균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농촌진흥청과 전북대에서는 전통주를 포함 주류산업에 필요한 효모와 유산균의 실용화 연구에 대해 수행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전주 덕진공원 일대 전통공원 조성

2020년까지 720억 투입

‘창포와 연꽃의 정원’으로 불리는 전북 전주 덕진공원 일대가 전통공원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10일 덕진공원을 아시아 최고의 전통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그러시대 자연적으로 형성된 대형 호수(4만여㎡)로 전북지역의 대표적 연못 군락지인 덕진공원은 매년 여름이면 연분홍색의 연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며 주변의 수양버들, 창포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덕진공원이 아시아 최고의 정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

는 전통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는 덕진 연못, 조경단, 오송제 등 3대 핵심 공간과 이에 연계한 부거점 공간을 활용해 쾌적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동식물이 공존하는 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덕진 연못 권역은 전통문화소스를 중심으로 한 ‘품격의 정원’으로, 조경단 권역은 조선왕조 건립 설화 등을 활짝 터뜨리며 주변의 수양버들, 창포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덕진공원이 아시아 최고의 정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

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체련공원 주변은 문화·체육, 동물원 주변은 한반도 서식 동물을 각각 테마로 삼자고 덧붙였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지산과 덕진공원 생태복원, 어린이 테마 정원 조성, 사계절 이야기 길 조성 등의 선행이 지적됐다.

시는 이번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2020년까지 7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민수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덕진공원 정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의 외연이 확대되고 70년 동안 공원지구로 묶여 개발이 지연된 인근 상권에 도보합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순창 실내수영장 편백나무 리모델링

순창군이 최근 지난 1998년 개장한 실내수영장 내부를 편백나무 리모델링해 최근 재개장했다. 매일 2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순창 실내수영장은 지난해 7만9000명의 주민이 찾았으며, 입장 수입으로 9500만원을 벌어들였다.

〈순창군 제공〉

단신

정읍경찰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나서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지난 3년간 교통사고 분석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정읍경찰에 따르면 매년 평균 66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060여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

에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은 그 원인으로 차량의 증가, 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설 미비 등은 물론 교통안전 불감증 등 잘못된 운전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성료

남원시 운봉읍 애향회와 운봉읍이 주관이 돼 지난해 12월24일 개장한 ‘제3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지난 9일 50여일간의 행사를 마쳤다. 주최 측은 5만여명의 내방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눈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오는 5월 개최예정인 ‘제20회 지리산 바래

봉 철쭉제’와 함께 남원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직접적인 소득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가, 지역 중소기업 매출 증대 등으로 모두 15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시립박물관, 승동표화백 특별전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제6회 기획전 특별전으로 승동표(1918~1996) 화백의 삶과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의 세간 승동표, 정읍을 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3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2개월 동안

열린다.

승동표 화백은 1918년 9월14일 평북 정주군에서 출생했고, 1933년 임용원 선생의 지도하에 미술에 입문했다. 정읍중과 정읍농고, 정읍여고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할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보건소, 해안가 마을 건강프로그램 운영

고창군 보건소는 지난달부터 3개월 동안 해안가 지역 상·하·심·해리면 9개 마을을 선정해 ‘해안생물권 행복업 건강업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마을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의 선형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 유병률이 다른 마

에 비해 2% 이상 높기 때문이다.

보건소 측은 해당마을 30세 이상 전 주민에 대해 주 2회 총 12주 프로그램을 운영, 민생질환 기초검사, 합병증 검사, 체성분·골밀도 검사 등을, 6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